

##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예) 육군중령 손창문

MSO부위원장, 지도목사



저는 2017년 하나님의 은혜로 키르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다녀왔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언어도 모습도 다르지만 여러분이 가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영혼과 승리의 삶을 위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전쟁과 고된 훈련, 위기의 상황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육군중위로 월남전에 참가했을 때 생사가 걸린 전쟁터로 가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성경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월남으로 갈 때 군함을 이용했는데 가던 중 필리핀 근해에서 태풍을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극한 상황으로 염려와 두려움에서 기도를 하는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 할 것이라"(사 43:2)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안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월남에 도착해서 실전 적응 훈련을 받을 때 당시 전쟁 영웅이었던 분이 000고지 전투경험을 소개하는데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후방으로 침투하라는 명령을 받고 죽음의 위기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특공조를 이끌고 새벽에 출발을 하고 보니 그날 따라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덮여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적을 격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시고 안개로 자기들을 감싸 주신 것"이라고 간증을 하는데 저의 가슴이 뛰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 전쟁터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라고 기도가 드러졌습니다.

그렇게 저에겐 기도가 곧 삶이었습니다. 적의 은거지를 수색하거나 적의 이동로에 야간 매복을 나갈 때면 실탄을 지급하고 방탄복을 착용하고 최종군장검사를 하는데 모두가 긴장하여 숨을 죽이는 그때 "이제 기도하자"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자들까지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나약한 인간이 되어 전능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에게는 신앙이 더욱 필요한 것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죽음이후의 영혼까지도 보장 되는 것이기에 전능자를 믿는 신앙은 인생에게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인생보험이 되는 것을 저는 전지(戰地)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털끝하나 상함 없이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경험이 있는 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 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하리로다.(시27:1, 3)

군인은 불확실한 전쟁 가운데 생명을 내놓는 자들입니다. 그 곳에서 누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아니라도 삶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평안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을 귀하의 보호자요 인도자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